

정의선 “불가피한 생산차질 신차출시·수출확대로 만회”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재계 총수 중 첫 위기 극복메시지
정부주도 대응체계 적극협조 해야
조기 경영안정 위해 만반의 준비

“우리 모두 이번 위기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대응해 나갑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3일 임직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과 협력사에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이후 재계 총수가 위기극복 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임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위기상황 또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보다 의연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병균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이겨내면서 발전된 인류문화를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힘은 개개인의 건강한 정신과 육체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다.

그는 “정부 주도 대응체계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자원을 총동원해 임직원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며, 임직원 여러분이 안정적 일상을 누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코로나 종합상황실을 그룹과 각 계열사에 설치하고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일시적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겠지만 다양한 대응계획을 세워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에 조기 경영안정을 이루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마음으로 비상 대응을 하면 이른 시일 내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기초체력이 더욱 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산현장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주는 데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서로 물리적 간격은 멀어지더라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심리적 간격은 오히려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날 오전 협력사 대표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안정적 부품 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는 데 감사한다”며 “그동안 함께 도전하고 극복해온 저력이 있기에 이번에도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협력사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생산차질은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와 수출 확대를 통한 시일 내 만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 사태 정상화 후에 협력사에 추가 손실이 없도록 노사가 교섭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르노삼성 XM3.

‘XM3’, 1719만원부터 판매

르노삼성차 엔진사양·가격공개

TCe 260·1.6 GTe 2개 라인업 선택
EPA·360° 주차 보조 시스템 적용

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 2월 21일 사전계약을 시작한 프리미엄 디자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XM3’의 엔진 사양과 세부가격을 3일 공개했다.

XM3는 고성능 TCe 260과 경제적인 1.6 GTe 등 두 가지 가솔린 엔진 라인업을 선보인다. 가격은 1.6 GTe ▲S E 트림 1719만원 ▲LE 트림 1939만원 ▲LE 플러스 트림 2140만원, TCe 260 ▲LE 트림 2083만원 ▲RE 트림 2293만원 ▲RE 시그니처 트림 2532만원(개소세 1.5% 기준)이다.

TCe 260은 르노그룹과 다임러가 공동 개발한 신형 4기통 1.3리터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으로, 르노그룹의 주력 엔진인 실린더헤드와 직분사 인젝터를 수직 장착한 델타 실린더 헤드 등 신기술을 적용해 성능은 물론, 경제성 측면에서도 흡입을 데 없는 고효율성을 자랑한다. 델타 실린더 헤드 적용으로 엔진 경량화와 공간 최적화, 연료효율성까지 모두 충족시킨다. 복합연비 13.7km/L로 동급최고수준을 기록하며, 여기에 이산화탄소(CO2) 배출량도 125g/km로 낮췄다.

1.6 GTe는 CVT와 조합을 이뤄 운전자에게 경제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한다. 여기에 D-스텝 기능을 적용해 자동변속기 느낌을



르노삼성 XM3 실내 모습.

즐길 수 있으며, 123마력의 출력과 13.4km/L의 뛰어난 연비로 경제성까지 얻을 수 있다.

동급에서 가장 낮은 차체높이(1570mm)와 가장 높은 최저지상고(186mm)를 적용해 세단처럼 날씬하면서도 SUV답게 견고하다. 충분히 확보한 최저지상고는 SUV에 걸맞은 외관은 물론, 넓은 운전 시야까지 확보해준다.

XM3는 뒷좌석 승객의 편안함도 놓치지 않는다. 동급 최상위 수준의 2열 무릎 공간 및 어깨 공간은 뒷좌석 탑승자에게 여유로움과 안락함을 안겨주고, 동급최대의 트렁크 용량(513리터)은 SUV 오너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넉넉한 적재공간을 확보해준다.

XM3 인테리오는 소프트 폼 소재와 모던 메시 및 핵사곤 데코레이션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10.25인치 TFT 클러스터와 인체공학적인 세로형 플로팅 타입 이지 커넥트 9.3인치 디스플레이는 가독성과 시인성을 모두 충족시킨다.

이 외에도 동급 최초로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EPA)과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을 적용해 주차 편의성까지 배려했다.

/양성문 기자

LS전선, 바레인-하와르섬 잇는다

1000억대 해저 케이블사업 턴키 수주

GCC 추진 친환경 프로젝트의 일환
장거리 프로젝트 경험, 수주 큰 도움

LS전선이 중동 걸프만에서 대규모 해저 케이블을 잇게 됐다.

LS전선은 바레인에서 1000억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사업을 턴키(일괄 수주 방식)로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바레인 본섬과 동남부 하와르 섬 사이 25km를 해저 케이블로 잇는 사업이다. LS전선은 사우디아라비아 EPC(설계·조달·시공) 업체인 알 기하즈로부터 제품 공급부터 전기, 설치 공사까지 일체를 수주해 2021년 9월 준공할 예정



LS전선의 강원도 동해시 해저 케이블 공장에서 직원들이 생산 제품을 점검하고 있다.

/LS전선

이다.

걸프만의 하와르 섬은 총 면적이 울

릉도의 3분의 2정도 되는 군도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어 바레인 정부가 관광 단지로 본격 개발 중이다.

이번 사업은 걸프협력회의(GCC)가 추진하는 친환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사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유럽과 일본 등 전선업체들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쳤다.

LS전선은 제주-진도 전력 연계망(105km)을 비롯해 카타르(100km), 미국(35km) 등 글로벌 장거리 프로젝트들을 수행한 경험이 수주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LGU+, 유선상품 설치·보수 자회사 ‘U+홈서비스’ 창립

1000명의 구성원 정규 업무 시작
‘멀티직무’ 체계·현장 교육 강화

LG유플러스는 자사 홈·미디어 고객서비스(CS)를 전담하는 자회사 ‘주식회사 U+홈서비스(유플러스홈서비스)’가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U+홈서비스는 LG유플러스의 인터넷TV(IPTV)·인터넷·인공지능(AI)스피커·사물인터넷(IoT)과 같은 홈·미디어 서비스를 설치·개통하고 유지·보수(AS)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는



정용일 U+홈서비스 대표(가운데)가 경영관리팀 박유근(오른쪽), 수도권현장지원팀 황혜원(왼쪽)에게 신규 사원증, 명함 등이 포함된 ‘웰컴 팩’을 전달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회사다.

U+홈서비스는 지난 2일 LG유플러

스 상암 사옥에서 정용일 신임 대표와 구성원들이 모여 신규 사원증, 명함 등이 포함된 ‘웰컴 팩’ 전달식을 갖고 홈메니저(현장직) 800명, 내근직 200명을 비롯한 1000여명의 구성원이 정규 업무를 시작했다.

U+홈서비스는 개통 및 AS 품질의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멀티직무’ 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AS 출동 감축, 개통 처리시간 단축에 집중하고, 고객응대 기본기와 같은 현장 접점 교육을 강화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SK머티리얼즈, 코로나대비 임시 업무공간 확충

“대면 최소화… 고객사에 제품 차질없이 공급”

생산 라인별로 9개소 구축

SK머티리얼즈가 코로나19 확산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SK머티리얼즈는 최근 경북 영주시 본사 공장에 현장 업무 담당자를 위한 임시 업무공간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임시 업무공간은 구성원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삼불화질소(NF3), 육불화황스텐(WF6), 모노실란(SiH4) 등 각 특수가스 제품 생산라인 구역별로 총 9개소를 구축했다. 업무용 PC와 사무가구, 정수기와 탈의실 등 업무에 필요한 용품과 편의시설을 갖췄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필수품도 비치했다.

SK머티리얼즈는 임시 업무공간을

통해 야외에서 설비 운전 및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와 조정실 근무자 등을 분리하고 감염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K머티리얼즈 관계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고객사에 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임직원 건강, 지역사회 확산 현황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K머티리얼즈는 부서별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모든 임직원 재택근무를 6일까지 시행중이며, 사업장내 방역 소독과 체온 측정도 수시로 진행 중이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는 부서별 최소 인력 운용 방안과 폐쇄 시설 최소화 대책 등을 담은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김재용 기자 juk@